

“올림픽과 建築士”

- 올림픽 / 건축가의 의견 꼭 참작해야
- 건축 / 정신적 창조물의 으뜸
- 백년을 내다보는 안목 필요
- 한국문화의 底流 보여줘야

건축이란 인간정신의 참모습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외여행에서 폐허의 도시를 걸을 때는 특히 과거 인류의 정신적인 結晶이 그곳에 숨쉬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와같이 인류정신의 結晶을 표현해주는 것은 건축 이외는 없을 것이다.

정신사의 기억을 영구히 남기는 것이 바로 건축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어디를 가도 자연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인간의 공동체로서의 형태가 확실히 눈에 띄게 되며 이러한 것의 集수가 도시가 되며 바로 이것이 건축인 것이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그속에 창조된 하나의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은 건축 이외는 없을 것이다. 불란서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호-루 파데리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 최고의 것이 건축이며 다음이 음악이고 詩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모습과 공동체로서의 感性의 형태가 건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 도시를 보고 한 눈으로 민족적인 그 많은 수난사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한다. 貧困과 怨과 恨의 정신 속에 나의 참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참 형태가 사실 이외의 것으로 보일리는 없다.

나쁘게 말해서 당장에 닥친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 지내오는 식의 생활태도, 무계획성의 결과가 우리 생활주변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살아 왔을까, 그래도 오천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때 당시의 어느 시대를 비교해 볼 때는 국제사회

적으로 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근세에 와서, 정확히 말해 2~3백년전부터가 더욱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까? 당쟁과 사화로 날을 새운 집정자와 주변인물들, 그러나 오늘 나와 우리들이 만일 이와같이 똑같은 형태로 세월을 보낸다면 후손들에게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문제, 10년 후의 문제, 백년 후의 문제, 아니 오백년, 천년 뒤까지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올해의 할일들이 각각 다른 日課와 年課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쾰른사원을 보라! 3,4백년 동안 계속해서 건축을 해왔고 아직도 뒷손질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인에게 우리를 보일, 나의 참모습과 우리의 공동체의 참 형태를 보여야 할 시기가 바로 88년의 올림픽이다.

갑자기 그 시기 그 시간을 위해서 반드시 서두르기 보다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은 今時代, 동시대의 생활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건축인으로서 미래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서도 인공적인 조형물인 건축이 추한 모양만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각 분야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되살리고, 역사와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韓國文化의 底流에 있는 정신문화·철학도 찾아보자 (예를들면 불교철학 등). 이러한 우리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참 모습을 조형화 함으로써, 우리의 멋과 전통을 살림으로써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 주변을 살펴보면 서울을 남북으로 가

르고 있는 한강에 걸쳐진 다리만도 십여개나 된다. 이 한강의 푸른물이 흐르는 강변을 따라 인간주거의 공동체인 신홍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현시대 우리네 생활의 場이며 참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주거군은 建設意志의 성과로서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강에서 볼 때의 인공적인 조명이나 강변의 인공대지 위에 상가 등을 형성하거나 교량의 하부 측면의 조형미 등 또는 Land-mark로서의 Tower, 우리 우방의 6.25 참전기념비, 2차대전과 일제에 의한 민족수난역사관, 광복건설관, 민족적인 문화예술의 뿌리가 있는 기념관, 전통공예관 등을 건립해서 계속 현대적인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만 우리의 문화가 계승되지 않을까?

물론 건축사나 도시계획가에게는 불량지구의 재개발사업과 도시미관심의가 더욱 중요하고 절실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란 개념에서 생각할 때 국제수준의 각종 현대시설, 호텔, 경기장 등 여러가지 시설이 당연히 준비되어야함은 사실이나 빠뜨리지 말아야할 것은 우리 한민족의 빛과 얼이 담긴 예술, 조화의 뿌리가 있는 시설, 조형, 정신성, 음악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차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88년 축제에 대비하여 싹이 트게 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이러한 종합적인 眼力에서 볼 때 政策의 방향과 세부지침작성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각 건축관계 단체나 조직원은 우리의 대행사가 미래에 길이 성공적으로 남길 과제를 집행자 혹은 참여자들에게 자극과 도움, 참고가 되게 지혜를 짜내어 조직적으로 진언 되어야 하고 弘報되어야 하고 상호 정보교환도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인사들은 건축사의 의견과 의지를 심분참작하고 또한 그러한 소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다가올 88년의 올림픽 축제에 한국적인 우리의 참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건축사의 창작의 폭을 넓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心象)